

■ 특특뉴스

광주경총, 직장적응 우수사례 공모전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직장적응 지원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상반기 직장적응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상반기(1~6월) 교육참여기업 교육담당자와 참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경총 직장적응팀(gjef_gjef@naver.com)에 오는 6월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참여기업 교육담당자의 경우 교육 참여 목적 및 조직문화개선 기대효과와 만족도 등을, 관리자 및 신입 직원은 리더 역할 가치 정립, 조직 공간대 형성 및 직장적응 도모, 직장예절 이해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2명), 우수상(4명), 장려상(4명) 등 총 10명을 시상한다.

이연수 기자

유례없는 장기 불황...소상공인들 '채무의 늪'

광주전남 폐업공제금 또 역대최대
대출잔액·채무조정·대위변제 증가

유례 없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들이 살얼음 판을 걷고 있다.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대출액, 채무조정 신청, 대위변제금 규모가 모두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채무의 늪에 빠진 모양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상공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가 매년

최고치를 나타내는 중이다.

지난 2020년 1~4월 780건·69억 원이던 광주 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089건·131억 원까지 급증했다.

다음해(2024년 1~4월)도 1,248건·168억 원까지 불어나더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279건·203억 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해 1,282건·190억 원 공제금액을 지급했다. 이전 수치는 △2020년 584건 51억 원 △2021년 641건 68억 원 △2022년 603건 60억 원 △1,111건 122억 원 △1,183건 143억 원 등 3년 째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한국 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조 원 늘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빚은 쌓이면서, 상환 여력이 떨어진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신청도 증가 추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지난달 말 기준 20조 3,173억원으로 지난해 11월 15조원 돌파 이후 5개월 만에 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이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신용보증재단이 이들의 대출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도 불어났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지난 2022년 5,076억 원에서 2023년 1조 7,126억 원, 지난해 2조 4,005억 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4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8,1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37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홍승현 기자

■ 그래픽 경제



소비심리 4년7개월만 최대 폭 개선

미국 상호관세 유예 조치,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4월(93.8)보다 8.0포인트(p)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지난 2020년 10월(+12.3p) 이후 가장 컸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7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와 근로자 투표 보장을 위한 경제계 공동 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 근로자 대통령 선거 투표권 보장 캠페인

선거 참여 분위기 확산 주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27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와 근로자 투표 보장을 위한 경제계 공동 실천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회원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사전 투표기간(5월 29~30일)과 본투표(6월 3일)에 법으로 보장된 참정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경제계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상원 회장은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기업도 투표 참여를 위한 근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상의는 저명한 애널리스트이자 투자전략전문가인 이선업 신한투자증권 이사를 초청해 278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

했다. 포럼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제조업 육성 및 AI·에너지 패권 등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중심 전략이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자 마련됐다.

이선업 이사는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 철회보다는 미국 내 공장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철회’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배

터리·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자국산 LNG 수출을 확대하려는 ‘가스 외교’ 전략과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한국 조선업과 원전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원전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 증가가 국내 수출기업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

주식회사 폴 테크

도로 안전표지판지주, 신호등주, CCTV지주, 가로등주, 종합함, 스마트폴, 태양광 가로등주 등 도로교통지주 분야를 개발, 설계하여 나라장터, 쇼핑물 제품등록, 정부 R&D를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시스템을 교통지주와 결합하는 아이디어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지주

신호등주

폴테크 외부 전경

폴테크 내부 전경

주식회사 폴테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 대불) 공장동 106호
Tel . 061) 464-8992 Fax . 061) 464-8993